

다니엘서는 예루살렘과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에 이어서 에스겔서와 거의 중복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석함으로 뒤를 돌아본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으로 내다본다. 에스겔은 그들의 성전 회복을 기대하며 다니엘은 그들의 국가의 회복을 기대한다. 에스겔은 제사장적 견지에서 이야기하며 다니엘서는 선지자적인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다니엘의 생애와 사역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전기간을 증거한다.

I. 다니엘서의 명칭

다니엘 (Daniel) 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시라는 의미이다. 70 인역에서 헬라어 다니엘의 표현 형식은 라틴어와 영어 명칭의 기초가 되었다.

II. 다니엘서는 저자와 저작연대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첫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의하여 주전 530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다니엘서가 마카비안(Maccabean)시대(대략 주전 165년)에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이 저자인 근거는 내증과 외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일부를 정리해 보면

- 1) 다니엘서 전체는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어 간 다니엘에게서 왔음을 주장한다 (1:11, 그는 적어도 고레스 3년까지 살았다 (주전 536년, 참고, 7:1; 8:1; 9:1; 10:1, 2; 11:1; 12:5).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작품으로 (마 24:15)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9:27; 11:31; 12:11) 을 인용하셨다.
- 3) 에스겔서는 비평가들까지도 유명한 신자로 다니엘에 관해 세 번 언급하는 6세기의 작품으로 인정한다 (겔 14:14, 20; 28:3).
- 4) 유대인의 탈무드의 교훈은 본서를 주전 6세기의 다니엘에게 돌린다.
- 5) 마카비안 시대의 책들과 다니엘서의 언어적 문체와 단어의 주의 깊은 비교는 다니엘서가 그 시대로부터가 아니라 초기의 것에서 왔음을 보여준다.
- 6) 다니엘이 본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12:4), 그는 7:2에서 자서전적 제일인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 증언과 일치하며 그리스도는 9:27로부터 인용한 것을 다니엘의 예언으로 돌리셨다(마 24:5).

III. 다니엘서의 기본 구성

다니엘서를 구분해 보면 1) 다니엘 생애의 중요한 사건과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 (1-6 장)와 2)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들 (7-12 장) 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생애의 사건들과 간접적인 묵시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킴과 4대제국을 중심한 역사의 전개 예언이다. 그 내용은 (1)

다니엘의 성장 (1 장), (2) 큰 신상 사건 (2 장), (3) 풀무불 사건 (3 장), (4) 큰 나무 꿈 사건 (4 장), (5) 벨사살의 징벌 (5 장), (6) 사자굴 사건 (6 장) 으로 나눈다. 둘째로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들은 선민의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것으로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한 장소를 보면 바벨론 (1-5, 7-8 장), 바사 (6, 9-12 장)에서 기록했다.

IV.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

바벨론은 앗수르를 정복하고 주전 605 년에 애굽 군대를 패배시킴으로 중동의 맹주국이 되었다. 다니엘은 첫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자 중에 있었다. 그는 선지자, 정부관리자로 바벨론 포로의 전 기간동안 일했으며 바벨론이 주전 539 년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후도 계속하였다. 그의 선지적 사역은 그의 유대 동향인들에게처럼 바벨론과 (느브갓네살과 벨사살) 페르시아 (다리우스와 고레스)의 이방 왕궁에 대한 것이었다. 고레스 1 년에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으며 다니엘은 적어도 고레스 (주전 536 년, 10:1)왕 제 3 년대까지 사역하였다.

V. 다니엘서의 수신자

다니엘서는 유대 백성 중에 어떤 특수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꿈을 해몽해 준 자는 그가 일했던 이방 왕들이었다. 그러나 본서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의 억류기간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다니엘의 기록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임으로 포로된 자들의 용기를 위해서 보존되었다(참고, 2:44; 12:1f).

VI. 다니엘서의 주제

다니엘은 이방인의 지배 시대와 그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프로그램을 드러냄으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썼다.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방인의 세력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영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은 반복하여 인간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그가 택하실 자에게 주신다(4:25).

- (1) 역사의 이면에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전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이를 홀로 경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 (2) 역사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된다.
- (3) 여호와 신앙은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보장한다.
- (4) 선민의 지위는 영원하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 (5) 기도는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이다. 신앙은 세상에서의 고난을 야기하지만 성도는 종말론적인 구원과 승리를 대망하며 인내를 가져야 한다.

VII.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뜨인 돌 (2:34,35, 44):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
- 2)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 (7:13-14): 메시아 이신 왕
- 3) 끊어질 운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9:26):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증거
- 4) 묵시의 수여자 (10:5-9):
- 5) 상고 (7:22)

VII.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 핵심 요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하나님의 주권과 때
- 2) 핵심 절 : 2:20-22; 2:44; 12:1
- 3) 핵심 장 : 9 장